

## 【발표 2】



#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Teanh Prot

시온 소페아리트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사무관, 왕립예술대학 강사

줄다리기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민속놀이이다. 줄다리기를 두 팀 간의 순수한 힘겨루기로 보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심오한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식으로 보고 특별한 명절에 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4월 중순 무렵의 설 명절과 설이 지난 후 시농(始農)을 알리는 축제(Chlong Chet 또는 Chlong Chnam) 때 줄다리기를 행한다. 줄다리기는 보통 ‘씨앗 던지기(bos ankonh)’ ‘보자기로 짠 공 던지기(chaol chhoung)’ ‘손수건 숨기기(lakanseng)’ 등 여러 민속놀이와 함께 별인다. 놀랍게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줄다리기를 가장 중요한 민속놀이로 생각한다. 캄보디아 국민 중 이 놀이를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 마을 원로들의 전통 수호에 대한 의지 감소, 급속도로 진전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줄다리기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줄다리기 대신 다른 현대적인 오락거리에 젊은 세대의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발표 자료와 함께 제공한 짧은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전통 줄다리기의 현황을 간략히 언급하고 동아시아 줄다리기 심포지엄의 취지에 걸맞게 줄다리기의 역사적 의미와 의식으로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줄다리기에 대한 대략적 설명

이 민속놀이는 크메르 말로 ‘줄 당기기’라는 뜻의 Teanh Prot이라고 불린다. 줄다리기는 보통 민속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널찍한 마당이 있는 불교사원 또는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벌어진다.

줄다리기는 사흘 간의 설 명절 중 마지막 날에 행한다. 캄보디아 북부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풍습을 지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명절의 마지막 날을 크메르어로 pdach prot(줄 끊기)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설날에 밧줄을 자를 경우, Chlong Chet 축제에서는 줄다리를 하지 않는다.

줄다리기는 미혼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도 하지만, 보통 25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기혼 남녀로 구성된 두 팀이 경기를 벌인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여성팀의 수가 남성팀보다 더 많다. 각 팀은 10~30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심판은 연배가 높은 참가자 중 두 명을 뽑는다. 두 명의 심판이 있다면, 각 팀을 대표하여 남자와 여자 한 명씩 선출한다. 경기장 한 가운데에 선을 긋는다. 요즘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밧줄을 사용하여 경기를 벌인다. 각 팀은 경기장 바닥에 그어 놓은 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도열한 뒤 밧줄을 잡는다. 심판이 셋을 세면 경기가 시작된다. 때로는 심판이 yak이라고 세 번 외쳐 양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한다. 그러면 각 팀 선수들은 심판의 고함을 듣고 heouy라고 외친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뜻도 있다.

세 번의 고함 지르기 후, 양팀 선수들은 줄을 당기기 시작한다. 줄을 당겨 상대팀이 바닥에 그어 놓은 선을 넘어오게 하면 승리를 얻는다. 줄다리는 수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열기 가득한 경기이다.

경기가 끝나면 승려(achar)가 밧줄의 한 가운데를 자른다. 때로는 양팀이 힘껏 당기는 바람에 줄이 끊어지기도 한다. 요즘에는 밧줄을 시장에서 사야 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줄을 끊지 않고 의식만 거행한 뒤 다음 해 경기를 위해 보관한다.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팀들은 내기를 건다. 승리한 팀의 선수들은 목마를 타거나 상대편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린다. 패배한 팀의 선수들은 진흙을 바르거나 몸을 진흙탕에 굴리는 벌칙을 받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벌칙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 명절과 Chlong Chet 축제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용인된다. 마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놀이에 참여한다면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한다. 이러한 벌칙 때문에 나이 어린 미혼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벌칙이 없으면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줄다리기에서 내기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 2. 줄다리기의 역사적 배경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행하는 줄다리기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했다. 이제 줄다리기의 역사적, 종교적 의미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캄보디아 문화에서 줄다리기의 기원 및 영감의 원천은 물리적, 종교적 측면에서 “유해교반(乳海攪拌)”이라는 힌두교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도해와 명문 증거에 따르면, 유해교반 신화는 당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고대 캄보디아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신화는 기원지인 인도에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유해교반 신화를 묘사한 부조를 보면 우유를 젖는다가 보다는 신과 악마가 합심하여 ‘나가(naga)’라는 용의 형상을 한 뱀줄을 당기는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참조). 또한 줄다리를 신과 악마의 힘 대결과 결부시키는 흥미로운 설화가 존재한다(번역된 내용이 담긴 보고서 참조. 추후 ICHCAP에 제출 예정). 뿐만 아니라, 힌두교 신화를 잘 모르는 캄보디아인이라도 앙코르와트 사원(12세기 건립)에 가서 유해교반을 묘사한 50m 길이의 조각을 본다면, 그들은 즉각 Teanh Prot의 장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캄보디아인들은 유해교반이라는 힌두교 신화를 보고 줄다리를 즉각 연상시킬 만큼 Teanh Prot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 3. 줄다리기의 의미

줄다리가 설 명절 또는 Chlong Chet 축제에서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캄보디아의 설 명절은 사흘 간 지속된다. 사흘이라는 기간은 묵은해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이 기간은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혼란의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남성은 관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전통 놀이를 한다는 구실로 허용되기도 한다.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의식과 그와 관련된 놀이가 거행된다. 모래산 쌓기(추후 설명), 씨앗 던지기, 보자기로 썬 공 던지기, 줄다리가 그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줄다리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 (1) 시간의 경과와 주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간 개념은 ‘주기’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간 주기의 흐름은 뱀줄을 자르는 의식과 함께 종결된다. 뱀줄 자르는 묵은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됨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간 주기로의 진입을 상징한다. 새로운 시간 주기란 다시 음력 12달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새로운 벼농사 주기란 새로운 벼농사 철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 (2) 완벽한 시간과 사회 질서의 회복

이 세상의 만물은 시간과 함께 소멸된다. 즉, 모든 것은 완벽한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시간 주기는 끝나게 된다. 새로운 시간 주기가 시작 되기 전에는 만물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과도기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완벽한 시간 주기를 시작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Teanh Prot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유해교반이라는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교반은 신과 악마라는 경쟁 관계의 두 세력이 서로 합심하여 잃어버린 보물, 즉 불멸의 묘약(amrita)을 찾는 행위를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사회-종교적 맥락에서 이 힌두교 신화와 연관된 신앙 및 관습을 좀 더 면밀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캄보디아인들은 이 신화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12세기 말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 앙코르 톰(Angkor Thom)은 이러한 유해교반 신화를 모방하여 건설되었다. 도시 입구의 양 편에는 악마와 신의 형상을 한 조각들이 나가(naga)를 잡고 서 있다. 이는 분명 유해교반의 신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왕 자야바르만 7세(1181~c.1220)가 이 신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입구를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신과 악마들이 참족과의 전쟁 중에 잃어버린 ‘영광의 보물’을 되찾도록 이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를 휘젓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약 1177~1181년까지 캄보디아는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참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캄보디아를 수복한 자야바르만 7세는 캄보디아의 잃어버린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질서와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식과 정치제도를 정비했다. 그는 신과 악마가 도시를 휘저어 불멸의 묘약을 찾는다면 도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듯 되찾기와 재창조라는 내재된 관념은 Teanh Prot이라는 놀이 의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놀이는 ‘해(年)라는 시간 주기의 갱신’ 또는 ‘완벽한 질서를 가진 우주의 재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상서로운 시간, 질서 및 번영을 되찾기’ 위해 설 명절의 의식이 거행되는 것이다.

## (3) 생산을 상징하는 행위

남성과 여성이 편을 나누어 밧줄을 당기는 것은 생산이라는 활동을 상징한다. 또한 목말 태우기, 몸 굴리기, 엉덩이 때리기와 같은 별칙은 생산이 가진 성적 의미를 상징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이러한 행위들을 수행하기도 한다.

## 4. 결론

수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Teanh Prot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통 의식이다. 그러나 현재 실행 현황을 보면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